

장수군민 위한 다큐영화 특별시사회

군, 26일·3월 1일 한누리영화관서 군민 제작 참여·출연한 영화 3편 상영

장수군민들이 장수군을 배경으로 직접 제작·출연한 다큐영화가 군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장수군은 팬데믹 시대에 영상문화를 통해 서로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새롭게 발견한 행복의 가치를 나누며 건강한 문화 장수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26일과 3월 1일 한누리영화관에서 '장수군민을 위한 특별시사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장수군민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출연한 영화 '장수애인2020(107분)'과 '행복한 동수형(31분)', '행복한 운명(89분)' 등 3편이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인사와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시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좌석의 50% 이내로 제한해 진행된다.

이은신 감독의 '장수애인2020'은 복잡했던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무작정 장수를 선택한 주인공 은신이 장수에서 귀농·귀촌한 45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사랑, 행복,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하는 영화다.

정하연 감독의 '행복한 동수형'은 장수가 고향인 '하연'이 문득 30년 이상 동네에서 변함 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발달장애인 '동수'의 일상을 따라가며 행복의 가치를 찾게 되는 영화다.

이은신 감독의 영화 '행복한 운명'은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송산생'이 치매에 방임된 차 장수군에 살고 있는 9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아홉 분을 찾아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노인문제와 치매예방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다큐영화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했다"며 "영화를 통해 장수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제영화제에 장수군 소재 영상 콘텐츠가 출품돼 국내외에 장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올해 1월 개관한 갤러리 '잇_다'의 첫 정기전시회로 '교수 초대전 동행'을 개최한다.

무주군, 공연 선호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나서

무주관내 공연 관람여부·가장 보고 싶은 공연 분야·공연문화 향상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 5개항 질문

무주군이 군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 '2021 무주군 공연 선호도' 설문조사를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문화공연을 앞둔 군민 대상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군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폭 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무주군청 홈페이지 및 새물행정시스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설

문조사 방법을 택했다.

설문조사는 최근 3년 이내 무주관내 공연 관람여부를 비롯해 문화예술분야 정보와 가장 보고 싶은 공연 분야, 공연문화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등 모두 5개항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은 4월부터 11월중 있을 공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과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통제가 용이한 적절한 곳에 공연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연 선호도 조사 결과를 대폭 반

영해 공연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과 김경미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공연 선호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3월 매주 상설공연 무대 진행

수궁가 주제 '담판'·신규 공연 '목욕다락'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이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상설공연 '담판'과 '목욕다락'을 오는 3월 매주 오전 11시(수), 오후 7시(목)에 진행한다.

첫 번째 선보일 '담판'은 왕기석 원장과 원기중 박사의 진행으로 명창들의 소리와 함께 전문가의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판소리의 정확한 의미와 사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2019년 '춘향가' 2020년 '심청가'에 이어 올해는 '수궁가'를 주제로 인문학적 해설과 소리꾼들의 무대가 곁들여 진다.

3월 3일 첫 소리무대는 신진원(국립부산국악원)이 출연해 '남해 용왕이병을 얻는' 내용으로 미산제 '수궁가' 중 초입, 약성가, 토끼화상, 별

주부 모친 만류, 고고천변을 들려준다.

신규 공연인 '목욕다락'은 전통공연 양식에 예술적 깊이를 더한 21세기형 풍류무대로 기존 국악 애호층과 더불어 새로운 국악 관객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3월 4일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해금의 새로운 미학을 추구하는 '강은일 해금 플러스'의 스테디 레퍼토리 '오래된 미래'가 남원에서 처음으로 연주된다.

해금플러스 공연내용은 비상, mirage, 해금랩 소다, 서커스, 하늘소, 모리모리, 비에 젖은 해금, 밀양, 헤이아 등이며, 코로나로 예약은 필수로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63-620-2329)로 가능하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

군산대학교 박물관, '교수 초대전 동행'

갤러리 '잇_다' 첫 정기전시회로 3월 31일까지 전시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올해 1월 개관한 갤러리 '잇_다'의 첫 정기전시회로 '교수 초대전 동행'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2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고, 전시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교수 초대전 동행'은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와 강사 30명의 작품 30점이 전시되는 뜻깊은 전시로 동양화에서 서양화, 일체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전시를 통한 수익금 일부를 군산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있는 전시이다.

국립군산대학교 객병선 총장은 "이번 교

수 초대전과 같이 박물관 갤러리 '잇_다'는 지역사회 문화환경의 질을 높이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수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곳이므로, 지역민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관람시간 내 발열체크를 확인 및 안내할 수 있는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관람 시간은 월~토요일은 10시~17시까지이고, 그 외 대관 및 운영 문의는 전화(469-4191~2)로 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장수도서관, '생애주기별 독서동아리' 운영

초등학교 4-6학년·고등학생·성인반

장수도서관(관장 허남미)은 3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생애주기별 독서동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서동아리는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4~6학년, 고등학생, 성인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정원은 동아리별 각 10명, 5명, 15명이다. 다만, 도서관 사정에 따라 모집정원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내용은 동아리별로 활동도서를 정해 토론 및

독후활동을 하고, 특히 고등학생 동아리는 유아·아동에게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며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고학년 동아리는 지도 강사와 회원간, 고등학생·성인동아리는 회원 간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허남미 관장은 "다양한 주제와 연령대에 맞는 수준의 도서를 지속적으로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회원들의 독서능력 향상 및 지역 내 토론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https://lib.jse.go.kr/jp)이나 전화(351-5488)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고관호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